

한국어 CRDs의 번역

- 서양 번역에서 일본화의 문제 -

Jeanmaire Guillaume,
Korea University

서론

1. 목표-독자를 중시하여 의미를 우선으로 하는 전략들

- 1.1. 완벽한 정의로 대체하기
- 1.2. 단순화된 정의로 대체하기
- 1.3. '상위개념적 대체' 혹은 상위개념화
- 1.4. '문화적 전이(cultural break/leap)'

2. '문자'를 우선으로 하는 전략들

- 2.1. 문자적 번역
- 2.2. '전사(傳寫)(direct transfer)'
 - 2.2.1. 전사 전략의 우위성
 - 2.2.2. 의미의 명시를 첨부하는 전사
 - 2.2.2.1. 본문정보삽입
 - 2.2.2.2. 각주를 통하여
 - 2.2.2.3. 본문정보삽입은 각주로 해야 할까,
미주로 해야 할까

3. 한국어 CRD 전사와 관련된 어려움

결론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발라르(Ballard)가 ‘문화 지시대상의 지적(CRD)’이라고 명명한 것, 즉 ‘문화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기호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명이나 문화를 구성하는 총체적 요소나 특성⁴’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러한 CRD는 고유명사(추석, 조선 등)가 될 수도 있고 보통명사(김치, 소주 등)가 될 수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CRD의 보통명사로 연구를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CRD는 불어에는 어떤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휘화된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한국 문화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용어들이다. 이러한 CRD는 한국의 전통 가옥형태, 요리나 의복, 음악, 불교나 샤머니즘, 관례나 풍습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 등이 될 수 있다.

CRD에 직면하여 번역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발라르는 이러한 전략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의미에 단서를 제공하면서) 원문 용어의 이방성을 살리고자 하는 전략들이고, 다른 하나는 원문의 시니피앙을 무시하고 의미의 표현에 주력하고자 하는 전략들이다.”⁵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전략들, 즉 도착어 독자(receptor language readers)를 보다 더 염두에 두는 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전략들은 문화적 지시대상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없애고, 앙리 메쇼닉의 용어에 따르면 도착어 독자의 ‘언어-문화’에 맞추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전략들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CRD를 그것의 정의(혹은 설명의 형태)로 대체하기, 2) CRD를 정의의 일부(단순화된 정의)로 대체하기, 3) 상위개념적 대체, 4) “이동한다는 관점에서 단절이나 적응의 전략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전이(cultural break/leap)’” - 이것은 CRD를 도착어

⁴ BALLARD, Michel, « Les stratégies de traduction des désignateurs de référents culturels », *La Traduction, contact de langues et de cultures* (Tome 1), Arras : Artois Presses Université, 2005, p. 126.

⁵ 문화적 지시대상의 번역은 두 문화를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번역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의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 거기에는 두 사회의 독자들에게 의해 특수하게 형성된 언어-문화적인 전체가 있다. 이 전체는 때로는 상반되는(시니피앙의 이방성의 보존이나 시니피앙의 해석이나) 우선성 안에서 대립하고, 때로는 일종의 협상된 전달사항을 실행하는 전략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협상의 배후에서 텍스트에 대한 관계는 물론 새로운 독자와의 관계가 결정된다. 우리는 이 새로운 독자들이 의미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동시에 변조된 독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Ballard, M., *Le nom en propre en traduction anglais ↔ français*, Gap, Paris, Ophrys. 2001, p. 108.)

독자의 문명이나 ‘언어-문화’ 혹은 그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또 다른 ‘언어-문화’의 CRD로 변경함으로써 실행된다 - 등이다.

이러한 우리는 원문용어에 대한 충실함과 정통성에서 나온 전략들, 즉 ‘원문용어의 이방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도착어 독자보다는 원문 텍스트나 ‘문자’를 더 많이 염두에 두는 전략들이다. ‘문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에는, 1) 문자적 번역 (혹은 베르만(Berman)의 용어에 따르면 ‘문자-의-번역’), 2) ‘전사’⁶의 방법 등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번역된 CDR는 도착어 독자들에게 모호함을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방식들은 본문정보삽입(incrémentialisation)⁷이나 텍스트의 각주를 통하여 의미의 명시나 설명을 부가하는 ‘의미의 단서’를 필요로 한다.

1. 목표-독자를 중시하여 의미를 우선으로 하는 전략들

1.1 완벽한 정의로 대체하기

이 방법은 Barnwell의 묘사적 방법⁸과 유사하다. 사실 하나의 CRD를 정의로 대체하는 것은 그것을 과중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 장독대, 해장국 등은 한국어로는 단 한

⁶ 발라르와 드릴(Delisle)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맥이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원문의 시니피앙을 도착어의 텍스트에 그대로 단순하게 옮겨적는 것을 ‘report’(direct transfer, ‘전사’)라고 부른다. 발라르는 ‘외국 용어를 하나의 언어로 통합시키는 것’을 지칭하는 차용과, 번역 텍스트 안에 단순히 전사, 통합하는- 전사된 용어는 그렇다고 해도 불어가 아니다- ‘전사’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게다가 그가 강조하는 것처럼, “번역의 기초적 작업으로써 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 불가능한 어떤 것에 직면하여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특성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밖에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Ibid. p. 16)

⁷ 발라르는 이 용어를 Jean과 Claude Demanuell에게서 차용했다. 각주나 미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에 CRD 의미나 해설의 형태를 삽입하는 것을 본문정보삽입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전사 혹은 문자적으로 번역된 문화 지시어의 옆에, 그 문화 지시어의 의미나 가치를 설명하는 각주나 묘사, 표 등을 텍스트 안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Ballard, M., *L'acte de traduire : éléments d'analyse*,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Québec/Corée : autour de la traduction, p. 58.)

⁸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묘사(피상적 형태, 외양)나 항목의 기능을 수반한 종속명을 나타낸다고 그것의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다. “The descriptive phrase usually involves a generic term, plus a description which focuses on that aspect of the surface form, or of the function, of the concept which is most relevant in the context.” (Barnwell, K.,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80, p. 80.)

단어이지만, 그것을 정의로 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중한 문장으로 환원된다.

(1) “저기 **장독대** 옆에서부터 뒤란 돌아가는 데다 차곡차곡 쌓거라.” (『마당 깊은 집』 : 116)

- Bon, entasse le bois à partir de **la terrasse sur laquelle sont disposées les jarres contenant les sauces de soja et les condiments pour l'hiver**(겨울에 먹을 간장이나 양념 등을 담아놓은 항아리들이 놓여져 있는 테라스), jusqu'à la petite cour derrière la maison. (*La maison dans la cour du bas* : 91)

(2) 하지만 그는 부듯가까지 나가 아침 **해장**을 끝내고 나서도 그 길로 곧 배를 타버리지 못했다. (『이어도』 : 109)

- Mais après avoir avalé **une soupe de sang de bœuf froide pour soulager sa gueule de bois**(숙취해소를 위한 소의 피로 만든 차가운 스프), il se dirigea (...) (*L'île d'Io* : 73)

첫 번째 예문은 그 길이 때문에 가장 인상적이지만, 가장 실체에 가깝고 가장 정확한 예문이기도 하다. 이 방법은 문장을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흔히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어버린다. 예문 (2)에 나오는 해장국은 찬 음식이 아니며, 특히 한국의 관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장국이 어떤 음식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장을 길어지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설명이 요구된다. 때문에 CRD를 그것의 정의로 대체하는 방식은 과중한 문장을 만들어내며 흔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설명할 상위개념적 대체나 ‘문화적 전이’와 같은 전략보다 더욱 상세하고 실체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무게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출발어의 문화적 지시대상들이 생략되며 지역색이 상실된다. 쥬뎨(Juttet)가 말한 것처럼, *choux chinois saumurés et assaisonnés de piment, d'ail, etc.*(소금물에 절여서 고추, 마늘 등으로 양념한 (중국)배추)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gimchi*(김치)라고 제시하는 것이 불어권 독자들에게 더 나은 번역방식이 아닐까? 이러한 번역 전략은 CRD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그만큼 덜 적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1.2. 단순화된 정의로 대체하기

문장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번역가들은 한국어 CRD를 완벽한 정의로 대체하는 대신 정의의 일부분으로 그것을 대체하면서 의미적인 등가어를 찾기도 한다.

CRD 포장마차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une gargote installée dans une baraque au bord de la route*’ (길가의 가건물에 자리한 선술집)과 같이 그것을 완벽한 정의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의의 일부로 대체하여 요약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더욱 간결하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gargote de rue*(길거리의 선술집)이나 *gargote ambulante*(순회(巡廻)식 선술집), *gargote de fortune*(허름한 선술집) 등으로 번역될 수 있고, 이때는 텍스트가 가벼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CRD 장독대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1)의 예문과 같이 긴 우언법보다는 *la terrasse aux jarres*(항아리가 있는 테라스)라는 요약된 표현을 선호할 수 있다. 항아리가 있는 테라스는 적절한 등가어이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남는다. 마찬가지로 CRD 제사(祭祀)도 *culte des ancêtres*(조상숭배)라는 단순화된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요약된 표현이 한국어 CRD를 잘 번역하고 있다면, 김치는 *choux pimentés*(매운 양념이 된 배추)로 번역할 수 있으며, 김밥은 *rouleaux de riz aux algues*(김으로 싸 밥말이), 마루는 *parquet extérieur* 혹은 *plancher extérieur*(바깥쪽 바닥, external floor) 등으로 보다 환원된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안방이라는 단어도 번역가들에게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단어는 앞으로 논의할 상위개념으로 대체하는 방법- 안방을 *chambre*((침대)방, (bed)room)로 - 외에도, 주인이 거주하는 곳, 즉 집에서 가장 넓고 안락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la grande chambre*(큰 (침대)방, large (bed)room) 이나 *la chambre principale*(주요한 (침대)방, main (bed)room), 또는 *la pièce principale de la maison*(집의 주요한 방, main room) 등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번역은 만족스럽지 못한 번역들이며, 특히 마지막 번역어의 경우 불어권 독자들은 이것을 거실과 같은 공동공간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CRD 안방의 적절한 등가어는 *la chambre des parents*(부모의 (침대)방, parents’(bed)room)이나 *la chambre du propriétaire*(주인 (침대)방, owner’s (bed)room) 등이 될 것이다.

떡이라는 단어는 *pâte de riz étuvée et pilonnée*(뽕은 쌀로 만들어서 찐 페이스트)라는 완벽한 정의보다는 *pâte de riz*(쌀로 만든 페이스트)라는 단순화된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불어로는 너무나 흔히 *gâteau de riz*(쌀과자), 영어로는 *rice cake*라는 오용된 정의에 따라 번역되고 있다. 그럴 경우 음력 정월 초하루에 먹는 떡국은 *soupe de gâteaux de riz*(쌀과자로 만든 스프)가 된다.

음식 용어를 몇 가지 더 살펴보자. 올바르지 않은 완벽한 정의에서 출발했을 때 부적절한 등가어(정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룽지는 그것의 간략한 정의인 *gratin de riz*(쌀로 만든 그라탱)으로 번역되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완벽한) 정의를 억지로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으로, 결과적으로 간단하고 가벼운 음식인 누룽지를 그라탱과 같은 일품(一品)음식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마찬가지로 누룽지에 끓는 물을 약간 넣은 후 다시 끓여 만든 송늬도 종종 *eau de riz*(쌀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 역시 완벽한 정의를 무리하게 간략화 하는 과정에서 나온 번역어로서 만족스러운 등가어라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 불어권 독자들은 쌀뜨물을 연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완벽한 정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성된 오역의 예로 불고기를 *viande bouillie*(삶은 고기)로 간략화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예로, 소주는 고구마로 만들어진 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alcool de riz*(쌀로 만든 술)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어 CRD를 단순화된 정의로 대체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요컨대 한국어 CRD를 단순화된 정의의 형식으로 대체하고자 선택된 의미적 등가어는 종종 실체와 거리가 멀고 환원적이며, 흔히 사실과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음식의 CRD를 번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마지막으로 번역가들이 이 전략을 사용했던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3) 그럼요, 다른 건 빠져도 **회식**에 빠질 수가 없죠.. (『녹천에는 똥이 많다』 :158)

- On peut tout manquer mais pas **un repas entre collègues**
(동료들 간의 식사) (Nokcheon : 67)

회식은 동료들과 함께 하는 술을 곁들인 식사를 의미하는데, 팀의 결속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회식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무적이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회식이라는 단어는 *un repas entre collègues*(동료들 간의 식사)라는 단순화된 정의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이러한 번역전략의 단순하며 환원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1.3. ‘상위개념적 대체’ 혹은 상위개념화

도착어에 정확한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CRD를 번역하기 위해 번역가들은 흔히 확장된 의미에서 가장 근접한 용어를 사용한다. 즉, 그것을 상위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위개념적 대체’나 상위개념화는 CRD에 의미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안방을 *chambre*(방, room)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일례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간략하며 환원적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이나 안락함은 번역되지 않는다. 막연한 번역의 예로는 한국의 전통 모자인 ‘갓’을 *chapeau*(모자, hat)로 대체하는 것과 일본에서 유래한 특별한 놀음카드인 화투를 *cartes*(카드)라고 번역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한국식 보드카인 소주 CRD를 *eau-de-vie*(증류주)로 대체하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은 막연하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외국 번역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속 국가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기대하는 독자에게서 모든 이국적인 풍미를 빼앗아 간다. 이 번역방식은 이국성, 즉 본 연구에서는 원본의 ‘한국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독자는 독서를 하면서 한국을 접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1.4. ‘문화적 전이 (cultural break/leap)’

번역가는 CRD를 도착어의 풍토에 순응시키기 위하여 ‘문화적 전이’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화 지시대상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 전략은 도착어에는 알려지지 않은 개념을 번역하기 위한 전략으로 Barnwell이 제시한 세 가지 방법⁹ 중 하나를 상기시킨다. 즉,

⁹ They are three basic possible alternative ways of translating unknown concepts

- 1. Use a descriptive phrase
- 2. Use a foreign term
- 3. Substitute a concept which is known in the receptor culture

(which has the same function as the concept in the source culture). (Barnwell, *op. cit.*, pp. 79-82.)

알려지지 않은 개념들을 번역하는 세 가지의 대안적 방법이 가능하다.

1. 묘사적 구문을 사용하기

이것을 원천어의 개념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착어 독자에게 알려진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녀 역시 이 전략을 ‘문화적 대체(cultural substitute)’라고 명명하고 있다.

CRD의 의미화는 ‘문화적 전이’라고 불리는 전략, 즉 도착어 독자의 ‘언어-문화’나 문명, 혹은 그것과 가장 친숙한 또 다른 문화의 CRD로의 전이를 통해 실행될 수 있다. 김용옥이 *fromage*(치즈)나 *beurre*(버터)의 번역어로 - 혹은 그 역으로- ‘된장’을 제안했을 때¹⁰ 화제거리가 되었었다. 이 문화적 전이는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원문의 CRD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이러한 종류의 번역은 지나치게 자민족중심적이며, 따라서 외국소설을 읽으면서 이국적 분위기를 기대했던 독자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음식 관련 CRD 중 이와 같이 문화적 정체성을 퇴색시키는 번역의 예를 몇 가지 더 찾아본다면, 두부는 *fromage de soja*(대두로 만든 치즈)로, 설령탕은 *pot-au-feu coréen*(한국식 포토프, 고기와 야채를 삶은 전통적인 프랑스 스튜)로 그리고 신선로는 *pot-au-feu roya*(궁중 포토프) 등으로 번역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침개나 파전과 같은 전은 *pizza coréenne*(한국식 피자)나 *galette coréenne*(한국식 팬케이크) 혹은 *crêpe coréenne*(한국식 크레프)라고 번역된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음식인 불고기는 흔히 한국식 바비큐와 동일시 취급된다. 음식관련 CRD외에도 우리는, 무당을 *sorcière*(마녀)로, 소주를 *vin*(포도주)로, 2/3차를 *1er/2e bar*(첫 번째/두 번째 술집)으로, 가야금이나 거문고 등을 *cythare*(시타르)로, 대금을 *flûte traversière*(횡적)으로, 해금을 *vièle*(비올라)로 그리고 (물로 마시는 보리, 옥수수, 둥굴레 등과 같은) 차를 *eau*(물)로 번역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2. 외국어 용어를 사용하기
 3. 수용 문화에 알려진 개념으로 대체하기

Barnwell은 여기서 차용과 대립되는 단어로 외국어 용어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실 아직 제니즘의 상태에 있는 외국어 단어를 도착어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은 차용이 아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전략을 ‘전사’라고 부를 것이다.

Barnwell (1980) Ballard (2005)

1. 묘사적/설명적 방법 → 1'. CRD를 그것의 완벽한 정의로 대체하기
2. 외국어 용어 → 2'. ‘전사’ (‘report’)
3. 문화적 대체 → 3'. 문화적 전이(‘saut culturel’)

¹⁰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98), p. 150.

마루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형태에서 유래한 특수한 CRD로서 불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단어이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이것을 도착어 독자의 문명에 적합한 CRD로 대체하는 것이다. 마루는 전통 가옥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루라는 단어가 등장한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마루는 외부로 향해 열려있고 땅의 높이보다 좀 더 올려서 증축 되어있는 처마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각 방에서 외부로 나갈 때 통과하도록 하는 ‘복도’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마루는 외부로 향해 열려있는 공간(방)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모양과 기능 때문에 마루는 어떤 때는 *couloir*(복도)나 *véranda*(베란다) 혹은 *estrade*(단상)으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salon*(응접실)이나 *salle de séjour*(거실) 등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무엇보다도 사실과 거리가 있으며, 특히 텍스트의 한국성, 즉 원문 용어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리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2차, 3차 등과 같은 한국의 술문화와 관련이 있는 CRD도 번역가들에게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저녁모임은 대개 먼저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것을 1차라고 부르고, 이어 장소를 옮겨 첫 번째 술집으로 가는 것을 2차라고 하며, 거기에서 나와 또 다른 술집(두 번째 술집)으로 가는 것을 3차라고 부른다. 이러한 CRD는 다음의 예문과 같이 막연하게 번역하거나(예를 들어 2차를 *boire un coup*(한잔 마시다)로 번역하는 것),

(4) “홍 선생, 우리 **이 차** 갑시다.” (녹천에는 똥이 많다: 160)

- Professeur Hong, allons **boire un coup**(한 잔 마시러)! (*Nokcheon* : 69)

아니면 ‘문화적 전이’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즉, 1차를 식당으로 번역한 후 2차와 3차를 각각 *premier et deuxième bars*(첫 번째 술집과 두 번째 술집)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문화적 독창성에서 나온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A. Berman¹¹ 및 JEONG, Eun-jin¹²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¹¹ BERMAN, A.,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coll. "L'ordre Philosophique", (Paris : Seuil, 1999), p. 29.

¹² JEONG, Eun-jin, « Faut-il chasser le naturel ? — Considérations sur la traduction en français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 », *tan'gun 2*, (Paris, Cric / Racine : 2002), pp. 63-83.

자기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규범 및 가치로 환원시키고, 그 외의 것 - l'Étranger -은 부정적인 것이거나 나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저 합병하고 순응시키기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지나친 자민족중심적 번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술을 곁들인 저녁모임의 두 번째 단계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문장을 우리는 *Allons dans un premier bar pour la deuxième étape de la soirée*(저녁모임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첫 번째 술집으로 갑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이 문장에서 텍스트의 각주는 정당화될 것이다.

전이는 마찬가지로 불어권 독자들에게 보다 잘 알려진 일본문화의 CRD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번역가들이 한국어 CRD를 일본어 CRD로 대체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일본어 CRD가 독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흔히 불어로 어휘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futon, tatami, sushi, tofu, saké, origami, karaté, kendo, karaoke* 등) 서양에 알려져 있는 일본어 등가어가 존재할 때 번역가들은 흔히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부는 *tofu*(일본두부)로, 바둑은 *go*(고)로 그리고 기생은 *geisha*(게이샤)로 번역할 것이다. 한국어 텍스트가 일본화되는 것을 피하고 지역색을 보존하기 위하여 게이샤라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어 등가어인 *courtisan*(고급창녀)을 사용하거나 각주가 첨부된 전사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더욱이 등가어라고 여겨지는 일본 CRD가 항상 적절히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부자리라는 단어는 *futon*(이부자리)라고 하는 대신 *tatami*(다다미)로 환원된다. 소주가 *saké* (사케)로 대체되는 것도 잘못된 번역이며 부정확한 것인데, 이는 사케는 쌀로 만들어진 술이지만 소주는 고구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5) 늘어진 위장은 이젠 점심에 곁들인 소주 한 잔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순례자의 노래」: 177).

Un verre de **saké**, (**사케**) pris pendant le repas, ne me fait aucun effet. (*Le chant du pèlerin* : 68)

게다가 사케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일반적인 술의 의미로 사용된다. *Petit Robert* 사전의 설명을 살펴보면 일본인은 사케를 ‘nihonshu(일본주)’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가라오케와 엄연히 구별되는 노래방을 *karaoke*(가라오케)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라오케의 이미지는 같은 홀 안에 모여 공개적으로 노래하는 곳이지, 한국의 노래방과 같이 독립된 구역으로 나누어진 노래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다.

번역가들은 또한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즉, 여전히 체니즘의 단계에 있는) 일본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된장을 *miso*로, 벚꽃을 *sakura*로, 김을 *nori*로 그리고 라면을 *ramen*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다.

(6) "혹시 하루 세 끼를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것도 무려 이십오 년 동안 말예요." (『사슴벌레 여자』 : 20)
- Avez-vous par hasard entendu parler d'un homme qui ne mangeait que des **ramens (라멘)** trois fois par jour et ceci, depuis vingt-cinq ans ?
(*Voleur d'œufs* : 21)

위의 예문에서 라면의 일본어 등가어인 *ramen*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nouilles instantanées*(인스턴트 면)이나 *nouilles précuites*(반조리 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면과 같은 단어는 어쨌든 기움임체로 쓰여야 하며 주석을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통하지 않은 불어권 독자들에게 이 단어는 어떤 것도 연상시키지 못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요컨대 문화적 전이는 때에 따라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도착어 독자의 문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텍스트의 ‘한국성’을 지워버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문자’를 우선으로 하는 전략들

지금부터 전략의 두 번째 유형, 즉 원문 용어의 문화적 정체성인 ‘문자’를 중시하는 전략들을 살펴보자. 우선 문자적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 이어 전사의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전략이 다른 조치들과 함께 쓰여야만 견고한 번역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전략은 본문정보삽입이나 주석을 통하여 ‘의미의 단서’를 첨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 문자적 번역

CRD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분명 의미보다는 원문의 시니피양, 즉 ‘문자’에 가장 근접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흔히 도착어의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원문 용어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시하긴 하지만 환원적이며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CRD 물냉면을 *pâtes froides à l'eau*(물에 있는 차가운 면)¹³이라고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은 독자들의 식욕을 돋우지 못할 것이다. 문자적 번역의 또 다른 예로 김밥을 *riz aux algues*(김에 있는 밥)¹⁴이라고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자역의 예는 매우 환원적이며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역은 때로 텍스트를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 CRD 포장마차를 *roulette bâchée*(포장-마차)¹⁵라고 문자적으로 번역했을 때, 만약 번역가가 주석을 달지 않고 문자역에서 그친다면 독자는 이것을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동식 싸구려 선술집이라고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CRD 보리차를 *thé d'orge*나 *infusion à l'orge*(보리-차)라고 번역하는 것 역시 문장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7) 드나들기 시작한 일 주일 가량 됐나요. 아침부터 들어와서는
한나절씩 죽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안 시키구 순전히 **보리차**로만
버티는 거예요. (「꿈꾸는 자의 나성」 : 106)

Il arrive dès le matin et reste toute la journée à boire des **infusions d'orge**
(**보리로 만든 차**), sans rien commander d'autre. (*Los Angeles d'un rêveur*
: 24)

차를 항상 자동적으로 *thé*(차)라고 번역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특히 주석을 통해 볶은 보리를 우려낸 차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물을 대신하는 것임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리차는 프랑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carafe d'eau*(물)과 어느 정도 등가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nfusion d'orge grillé*(볶은 보리로 만든 차)라고 하든 혹은 단순히 *boricha*(보리차)라고 전사하든 어쨌든 텍스트의 각주를 첨부해야만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문자역은 흔히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정보삽입을 통해 살을

¹³ CHOE, Yun, *De la forêt à la Forêt*, P. Maurus (avec Jeong Eun-jin), *tan'gun 2*, (Paris, Cric/Racine : 2002), p. 89.

¹⁴ LEE, Chang-Dong, *Nokcheon*, Kim Kyunghee, Lee In-Sook et S. Coulon, (Paris, Seuil : 2005), p. 63.

¹⁵ YOUN, Dae-nyong, *Voleur d'œufs*, LEE Ka-rim et G. Ziegelmeier, (Paris, L'Harmattan : 2003b), p. 180.

붙이거나 텍스트의 주석을 통해 설명을 덧붙여야만 한다. 그리고 때로 인쇄표시를 통해 이국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2.2. ‘전사(傳寫) (direct transfer)’

이국성과 진정성, 즉 원문 CRD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단순하게 원문의 시니피앙을 그대로 옮기는 전사의 전략이다.

2.2.1. 전사 전략의 우위성

전사는 일반적으로 흔히 통용되는 번역 기술이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번역가가 번역을 포기한 것이라거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니즘은 불어권 독자를 위해서 항상 주석 등을 통해 의미를 부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사의 전략은 마루, 소주, 김치 등과 같이 환원할 수 없는 반복적인 용어에 적합하다. 실제 처음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의미를 각주 안에 한번 설명한 후 이어 다시 나왔을 때는 전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의미가 명시된 전사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원문의 시니피앙이 주는 이국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아주 간결하게 독자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근접 등가어(상위개념화)를 제시하고 문화적 전이의 전략 (발라르에 따르면 “원본문화에 비해 도착어 텍스트가 혼잡해질 위험”이 있다)을 사용하거나 혹은 완벽한 정의(너무 길고 무거운 방식)나 단순화된 정의(너무 단순하고 환원적이며 종종 실체와 거리가 있는 방식)로 대체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모호성의 위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전사하고 거기에 하나의 각주를 첨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사를 제외한 다른 전략들은 거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낳는 반면, 의미를 명시하기 위해 각주를 첨부한 전사의 전략은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실제 독자들에게 *gimchi*(김치)라고 제시하는 것이 *des choux chinois saumurés et assaisonnés de piment, d'ail, etc*(소금물에 절여서 고추, 마늘 등으로 양념한 중국배추)라고 하거나 혹은 간략하게 *des choux pimentés*(매운 양념이 된 배추)라고 하는 것보다 낫다. 소주 역시 그것의 종속명인 *alcool*(술)이나 *eau-de-vie*(증류주) 혹은 일본어 등가어로 여겨지고 있는 *saké*(사케)로 대체하는 것보다 *soju*(소주)라는 단어로 전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전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게다가 지역색을 보존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도착어의 ‘언어-문화’ 속에 정확한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을 번역해야만 할 때, 각주가 첨부된 전사의 방식은 이 어휘적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원문 CRD의 이국성을 간직하면서도 가장 간결하고도 충실하며 정통적인 번역이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인 한국 악기를 예로 들자면, 가야금과 해금을 도착어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해서 모습이 비슷한 *cithare*(시타르)나 *vièle*(비올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루나 단란주점, 전세 등과 같이 도착어의 ‘언어-문화’에 어떤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CRD를 번역할 때 문화적 전이를 적용하고(예를 들어 마루는 *couloir*(복도)라고 번역하고 단란주점은 *boîte de nuit*(나이트 클럽)이라고 번역하는 것) 실체와 거리가 먼 등가어를 사용하거나 단순화된 정의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고 각주를 첨부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CRD의 등가어가 존재하거나 소위 일본어 등가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특히 이 용어가 어휘화되지 않았을 때는 한국적 색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어 원본의 용어를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어휘화되었을 때조차도 소주를 *saké*(사케)로 번역하거나 노래방을 *karaoké*(가라오케)라고 번역하는 것은 텍스트의 한국성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소위 등가어라고 하는 것이 원본 용어와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전사의 전략은 이러한 제니즘 단계의 용어들이 어휘화되는 것을 촉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언젠가 차용의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sushi*(초밥), *tofu*(두부), *tatami*(다다미), *karaoké*(가라오케) 등과 같은 많은 일본어 단어들이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각주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2.2.2. 의미의 명시를 첨부한 전사

지금까지 우리는 전사 전략의 우위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문자역과 마찬가지로 전사 역시 단독으로 사용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문정보삽입이나 각주 등의 방식을 통하여 문화적 지시대상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2.2.2.1. 본문정보삽입

본문정보삽입은 본문 그 자체에 각주의 내용이나 설명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문맥이나 의미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본문정보삽입의 첫 번째 유형은 전사된 CRD 앞에 종속명이나 상위개념을 선행시키는 것이다. CRD 화투는 예를 들어서 (*le jeu de cartes*(놀음) 카드인 화투)라고 할 수 있다.

(8) 첫째 젓을 떼고 냇을 무렵이었다. 애 기르는 일의 가장 어렵고 손 많이 가는 고비에서 놓여났다는 해방감에서였는지 동창계 모임에서 느긋하게 **화투**판에 끼어 들게 되었다. (『엄마의 말뚝2』 : 63)

- C'était déjà le cas à l'époque de mon premier enfant. Troublée par le soulagement d'en avoir fini avec la partie la plus pénible de l'éducation, j'étais restée tard après une réunion d'amis pour jouer aux **cartes** *hwat'u*(카드놀음 화투) (*Les Piquets de ma mère* : 97)

이 방식은 보통명사 CRD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고유명사를 번역할 때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자. (고유명사 CRD의 예: 단오/추석 → *la (grande) fête de Dano/Chuseok* (단오/추석 (대)명절), 한산도 → *un paquet de cigarettes Hansando*(한산도 담배 한 갑), 박카스 한 병 → *un flacon de tonifiant Bacchus*(박카스 **강장제** 한 병), 지명의 예 : 화신 → *le grand magasin Hwasin*(화신 **백화점**), 세브란스 → *l'hôpital Severance*(세브란스 **병원**), 교보 → *la librairie Gyobo* (교보서점)¹⁶).

의미의 삽입은 각주의 내용이 정확하게 본문으로 옮겨진 것처럼 전사된 CRD 뒤에 괄호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전사된 CRD는 그것의 완벽한 정의 혹은 단순화된 정의가 괄호로 첨부되는 것이다.

(9) Comme j'aimerais avaler d'un trait un bol de **makköli!** (**alcool de riz**) (**막걸리!** (**쌀로 만든 술**))(Tigre et kaki : 103)

(10) Elle en trouve une quantité d'un **doe (=1,8 litres)** (**한 되 (=1.8 리터)**) (Tigre et kaki : 78)

(11) (...) étant couchée à la place la plus chaude de l'**ondol** (**plancher chauffé par la fumée conduite par un système de canalisation**)

¹⁶ 본문정보삽입의 전략과 고유명사 CRD의 일반적 번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장메르의 논문(JEANMAIRE, 「La traduction en français des noms propres coréens – Le cas des « référents culturels »」, 『불어불문학연구』, N. 73, 한국불어불문학회(2008a), pp. 287-351와 「La traduction en français des toponymes coréens」, 『프랑스문화예술연구』, N. 24, 프랑스문화예술학회(2008b), pp. 377-463)을 참고할 것.

circulant sous une couche de dalles de pierres couvertes de ciment et de papier huilé(온돌 (시멘트와 기름먹인 종으로 덮은 바닥 아래 순환식 도관을 설치하여 작동되면서 연기를 통해 난방이 되는 바닥)),
elle avait plutôt chaud (*Le chant mélodieux des âmes* : 13)

의미의 삽입이 하나의 간결한 정의일 때 독자는 독서를 할 때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다. 반면 예문 (12)와 같은 본문 속 정의의 길이는 독서를 방해하기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식의 본문정보삽입은 독자가 책 뒷부분의 어휘집이나 페이지 하단의 각주를 참고하기 위하여 독서를 중단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문장의 중간에 백과사전식 정의를 삽입한다는 것은 이상적 해결책이 아님은 분명하다. 더욱이 정통한 독자에게는 온돌이나 막걸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CRD와 같은 경우,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본문정보삽입 때문에 독서를 방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문정보삽입의 단점은 정보의 삽입이 한정된다는 것이다. CRD를 매우 간결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때, 특히 무게나 길이와 같은 단위의 경우 이런 방법이 수용될 수 있다. 반면 막걸리를 *alcool de riz*(쌀로 만든 술)이라고 정의한 것은 다소 단순화된 번역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우유빛갈의 이 술이 값싼 대중적 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요컨대 본문정보삽입은 번역자가 본문에 삽입할 수 있는 정의의 길이에 한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사된 시니피앙이 시니피에의 설명보다 앞에 놓이는 경우, 쉼표를 사용하여 의미의 설명을 보다 길게 하고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12) 주머니엔 단지 **자장면** 한 그릇을 먹을 돈밖에는 없었어요.
(『사슴벌레 여자』 : 155)
- J'avais d'ailleurs à peine suffisamment d'argent en poche pour m'offrir un plat de **Jajangmyeon, ces nouilles à la sauce de haricots noirs**(**자장면, 검은 콩 소스로 된 면**) (*Voleur d'œufs* : 151)

이러한 방식으로 의미의 삽입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괄호 안에 의미를 삽입하는 방식에 비해 덜 거추장스러운 번역이 된다.

반대로 의미의 설명을 전사된 단어보다 선행해서 삽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쉼표로 전사된 시니피앙을 분리시키거나 혹은 괄호 안에 전사된 원본의 시니피앙을 배열한다.

(13) Il ôte ses vêtements et son **chapeau en cône**, *kas*(원추형의 모자, 갓)
(...) (*Érables rougis* : 58)

(14) Il la fait monter dans **une chaise à porteurs** (*kama*).운반하는 의자
(가마) (*Tigre et kaki* : 142)

2.2.2.2. 각주를 통하여

본문정보삽입이 문화적 지시대상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해설이 불가피할 경우 번역가들은 각주가 딸린 ‘전사’를 사용한다.

불어에 정확한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는 CRD의 경우에 각주를 첨부한 전사의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전세와 같은 단어의 경우에 그러하다. (전세는 입주하면서 집값의 약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거액을 보증금으로 냈다가 퇴거 시 되찾는 매우 독특한 방식의 임대제도이다. 집주인은 이 돈을 투자해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돈을 번다.)

(15) “그럼 **전세**금이라도 있을 거 아냐?” “전세금도 없어요. 월세 살고 있어요.” (『녹천에는 똥이 많다』 : 207)

- Tu as versé **un jeonsé** quelque part, non ? - Non, je paye un loyer mensuel.

Note : Il était très rare jusque récemment en Corée de payer un loyer mensuel à son propriétaire. En général, on lui versait une forte somme, le jeonsé, en emménageant, caution que le propriétaire, après l'avoir placée, restituait au locataire lorsque celui-ci partait.
(*Nokcheon* : 127)

(각주 : 한국은 지금까지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입주하면서 주인에게 거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주인은 그 돈을 굴린 후 퇴거 시 세입자에게 반환한다.)

번역가들이 전사의 기술을 택할 때, CRD 의미의 삽입은 따라서 본문정보삽입이나 각주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 발라르가 강조한 것처럼, “각주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치욕이나 무능력의 표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의 전이가 수신자의 언어에 의해 수용될 수 없을 때 남게 되는 원문의 해석된 흔적이다.”¹⁷

¹⁷ Ballard(2001), *op. cit.*, pp 166.

2.2.2.3. 본문정보삽입은 각주로 해야 할까, 미주로 해야 할까?

주석은 페이지의 하단에 넣을 수도 있고 작품의 말미에 넣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주가 흔히 CRD를 번역하는데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주를 첨부하는 전사는 특히 CRD가 반복될 때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실제 작품의 말미에 있는 어휘집이나 미주로 CRD 의미의 명시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페이지 하단의 각주나 본문정보삽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독서를 하다 필요한 경우에 독자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며, 처음으로 CRD의 의미가 언급된 구문을 찾기 위해 앞의 페이지를 뒤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만약 번역가가 본문에 CRD의 의미를 명시하는 본문정보삽입을 사용한다면, 독자는 필요한 순간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 적지 않은 수고를 해야만 할 것이다.

본문정보삽입이 너무 많이 쓰였을 때 텍스트를 무겁게 하는 것과 반대로, 각주의 또 다른 장점은-특히 그것이 책의 말미에 나타날 경우-'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⁸ 특히 김치, 소주, 마루와 같이 (한국 소설을 처음 읽는 독자가 아닌) 정통한 독자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몇몇 반복적인 CRD에 있어서 본문정보삽입을 통해 텍스트를 무겁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미주는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각주보다 독자에게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아노(Joinau)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책의 말미에 있는 각주, 즉 CRD의 어휘집을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

요컨대 텍스트의 각주는 도착어의 독자들에게 (본문정보삽입으로는 할 수 없는) 더욱 완벽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번역 텍스트를 불필요하게 무겁게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한국어 DRC의 전사와 관련된 어려움

: 한글 옮겨쓰기 규칙에 대한 합의의 부재(해결책 제안: 몇몇 수정을 거쳐 현행 공식 규칙을 존중하기)

¹⁸ JOINEAU, B., « Sur l'état de la traduction des œuvres coréennes en français », *SEFC*18, 2000, p. 251.

라틴어와는 달리 한국어로 전사하는 것은 우선 한글의 옮겨쓰기나 바꿔쓰기를 필요로 한다.

한글을 옮겨쓰는 수많은 규칙 때문에 옮겨쓰기의 방식은 번역서의 출판 년도에 따라 혹은 번역가에 따라 *makkoli* / *makköli* / *makoli* / *makkeolli* (이상 막걸리)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 모든 전사(옮겨쓰기)가 같은 CRD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독자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2000년 8월부터 적용된 한글 옮겨쓰기의 공식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번역가가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이 규칙이 불어권 독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분명 영어권 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8월 이후에 출간된 번역본에서조차 번역가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고유한 옮겨쓰기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는 현행 공식 규칙을 선택하고, 다른 일부는 1984년에서 2000년 사이의 McCune-Reischauer 규칙을 선호하거나 혹은 기존 규칙의 일부를 변형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우리는 규칙을 통일해야만 할 것이라는 주제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¹⁹ 즉, 번역가들은 독자가 다양한 텍스트를 보면서 동일하게 참조할 수 있고 이전의 독서에서 획득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공유된 안정적인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어 CRD를 불어화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번역가들에 의해 공유된 규칙은 국제화되어야만 한다.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현행 공식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두부, 전세, 추석과 같은 CRD가 *tofou*, *jeonsé*, *Tchousok* 등과 같이 불어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2000년에 공포된 옮겨쓰기의 공식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독자가 CRD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찬성하는 것이지, CRD를 바꿔쓰기 위하여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발음된 음성만을 옮겨야 한다.

독자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반복적인 CRD에 익숙해질 수 있고 각주나 미주를 참고할 필요 없이 선행의 독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번역가들은 반드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옮겨쓰기 규칙에 대해 합의해야만 할 것이다.

¹⁹ JUTTET, J.-N., « La transcription des noms coréens est un problème français », *Lux Coreana* 1, 2006, p. 137.

결론

원문 용어가 가진 문화적 정체성의 의미를 중시하는 전략들은 거의 만족스럽지 못한 번역이 된다. ‘상위개념적 대체’와 일부가 삭제된 정의로 CRD를 대체하는 것은 단순하고 환원적이며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거의 환기시키지 못한다. ‘문화적 전이’는 실체와 거리가 먼 등가어를 발생시키고, 특히 원문의 문화에 대하여 ‘목표-텍스트’를 혼선시킬 위험이 있다²⁰. 흔히 불어로 어휘화가 되어있는 일본 문명의 CRD로 전이하는 것은 한국어 원천-텍스트를 일본화할 뿐만 아니라 - 한국 텍스트는 한국적이어야 한다 -, CRD 일본어가 그것의 한국어 대응어와 항상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왜곡하기도 한다. 정의에 의한 CRD의 대체나 설명적 형태의 번역은 보다 더 상세하고 따라서 실체에 가깝기는 하지만, 과중한 묘사적 문장으로 인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니피에보다는 원문 CRD의 문화적 정체성을 선호하는 전략들로 말하자면, 문자적 번역은 흔히 실체와 거리가 있으며 특히 텍스트를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번역은 본문정보삽입이나 각주를 통하여 의미를 명시해야 하며, 흔히 기호나 인쇄 표시(괄호, 기울임 등)를 사용하여 이방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CRD를 번역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략은 본문정보삽입이나 각주를 통하여 의미를 명시하는 전사의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사는 번역가가 실패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각주는 여기에서 번역의 일부가 된다²¹.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번역가는 두 문화와 두 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번역가는 따라서 일정 정도의 협상을 해야만 한다. 본문정보삽입이나 각주의 방법을 통하여 의미를 명시하는 ‘전사’의 전략은 “외국어의 시니피앙이 불어의 시니피에와 함께 보존되는 일종의 절충된 텍스트를 허락한다. 페이지에 나타난

²⁰ 발라르가 강조하는 것처럼 “원본의 문화에 대해서 번역된 텍스트를 찾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것이 일부의 사람들(예를 들어 Venuti와 같은)이 지적하고 있는 텍스트를 길들이는 방식, 즉 ‘길들이는 번역’ (domesticating translation)의 주된 경향을 이루는 것이다.”

²¹ “각주는 번역의 일부를 이룬다. 그것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문화의 특수성을 접하는 사실적이고 정직한 취급방식이다.” (Ballard(2001), *op. cit.*, pp 110)

기호는 상호 언어-문화적 만남의 증거이며, 이것은 영화의 자막과 유사한 번역 방식이다.²²”

CRD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는 페이지의 하단에 넣는 각주나 본문정보삽입보다는 미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운데, 이 경우에 독자는 언제라도 그것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수용할 때, 그 국가는 동화와 통합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다. 외국인들을 통합하고 자문화가 풍부해지도록 그들이 문화적 차이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석을 단 전사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인 불어는, 주제의 용어를 빌리자면 ‘타국에서 이주한 단어들’이나 ‘탈주병 명사들’ 덕분에 풍성해질 것이다.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차이를 간직해야만 한다. 따라서 김치, 마루, 소주, 막걸리, 온돌, 판소리 등과 같은 CRD 혹은 반복적인 ‘문화용어들’은 영어에서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제니즘에서 차용의 단계로’ 옮겨갈 것이다.²³ 이 점에서 영어권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타국에서 이주한 단어들’의 일부가 이미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즉, 셰익스피어의 언어로 어휘화 되었다는 뜻이다. 일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번역가들은 일단 어휘화된 단어들의 의미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어에서 유입된 많은 단어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결국 전사는 (바꿔쓰기가 아닌) 옮겨쓰기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번역가들은 한국어 CRD를 라틴어로 옮기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만 한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현행의 공식 옮겨쓰기 규칙을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불어권 독자들은 다양한 독서 안에서 그것들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반복적인 CRD의 어휘화는 한층 더 촉진될 것이다.

²² BALLARD, M., « Les stratégies de traduction des désignateurs de référents culturels », Ballard (éd.), *La Traduction, contact de langues et de cultures* (Tome 1), (Arras : Artois Presses Université : 2005), p. 139

²³ JUTTET, J.-N.(2006), *op. cit*, p. 141.

참고문헌

- 문헌 -

BALLARD, M. « Créativité et traduction ». *Target* 9:1, 1997, pp. 85-110.

BALLARD, M., *Le nom en propre en traduction anglais ↔ français*, Gap, Paris, Ophrys, 2001.

BALLARD, M., « Les stratégies de traduction des désignateurs de référents culturels », Ballard (éd.), *La Traduction, contact de langues et de cultures* (Tome 1), Arras : Artois Presses Université, 2005, pp. 125-151.

BALLARD, M., « L'acte de traduire : éléments d'analyse »,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Québec/Corée : autour de la traduction, 2007, pp. 47-68.

BARNWELL, K.,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80.

BERMAN, A.,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coll. "L'ordre Philosophique", Paris:Seuil, 1999.

DELISLE, J., *La traduction raisonnée : Manuel d'initiation à la traduction professionnelle de l'anglais vers le français*. Ottawa:Presses de l'université, 1993.

JEANMAIRE, « La traduction en français des noms propres coréens - Le cas des 'référents culturels' », *불어불문학회연구*, N. 73, 한국불어불문학회, 2008, pp. 287-351.

JEANMAIRE, « La traduction en français des toponymes coréens », *프랑스문화예술연구* N. 24,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8, pp. 377-463.

JEONG, Eun-jin, « Faut-il chasser le naturel ? - Considérations sur la traduction en français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 », *tan'gun 2*, Paris:Cric / Racine, 2002, pp. 63-83.

JOINEAU, B., « Sur l'état de la traduction des œuvres coréennes en français », *SEFC*18, 2000, pp. 229-258.

JUTTET, J.-N., « La transcription des noms coréens est un problème français », *Lux Coreana* 1, 2006, pp. 133-141.

JUTTET, J.-N., « Quelle romanisation ? », Actes du Colloque KLTI, Séoul, 13-14 sept., 2007.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98.

- CORPUS -

<번역서>

CHOE, Yun, "De la forêt à la forêt", P. Maurus (avec Jeong Eun-jin), *tan'gun* 2, Paris : Cric/Racine, 2002, pp. 84-97.

COYAUD, M., LI, Jin-Mieung, *Érables rougis*, Paris : Association Pour l'Analyse du Folklore, 1982.

COYAUD, M., LI, Jin-Mieung, *Tigre et kaki et autres contes de Corée*, Paris : Gallimard, 1995.

HAN, Mahlsook, *Le chant mélodieux des âmes*, J. Byon-Ziegmeyer, Lee Mijeong et Mine Hisik, Paris : L'Harmattan, 1995.

KIM, Won-il , *La maison dans la cour du bas*, J . Byon-Ziegmeyer, Paris : L'Harmattan, 1995.

LEE, Chang-Dong, *Nokcheon*, Kim Kyunghee, Lee In-Sook et S. Coulon, Paris : Seuil, 2005.

OH, Jung-hi, *Le chant du pèlerin*, Lee Byoung-Jou, Arles, Picquier Poche, 2003.

PAK, Wansô, *Les Piquets de ma mère*, P. Maurus et Mun Shiyeun, Arles, Actes Sud, 2006.

YI, Ch'ongjun, *L 'île d'Io*, Choe Yun & Patrick Maurus, Arles, Actes Sud, 1991.

YOUN, Dae-nyong, *Voleur d'œufs*, LEE Ka-rim et G. Ziegmeyer, Paris:L'Harmattan, 2003b.

YUN, Hŭng-kil, *Los Angeles d'un rêveur*, J. Golfin, Tcho Hye Young & Li Jin Mieung, Arles, Picquier, 1997.

<원서>

김원일, 『마당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1998.

박완서,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

오정희, 「순례자의 노래」 in 『바람의 뉘』, 오정희 소설집, 문학과지성사, 1986.

윤대녕, 『사삼벌레 여자』, 이룸, 2001.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 in 『쌀』, 푸른숲, 1993.

이창동, 『녹천에는 똥이 많다』, 문학과지성사, 1992.

이청준, 『이어도』, 열림원, 1998.